이태희(26·서울, 가구공예)씨의 '목파' 한아남(24·서울)씨의 '도시의 빛, 낮과 밤' 이기연(30·서울)씨의 '공간의 기둥' 한아남(24·서울)씨의 '도시의 빛, 낮과 밤'(왼쪽부터)

나무라는 정적 소재를 역동적이고 에너지 넘치게

익산 한국공예대전 전국공모전 대상에 이태희 '목파' · 최우수상에 한아남 '도시의 빛 낮과 밤'

제17회 익산 한국공예대전 전국공모전에서 이태희(26·서울, 가구공예)씨의 '목파'가 대상에 선정됐다. 대상에게는 상금 3000만원이 주어진다.

(사)한국공예문화협회(이사장 이광진)이 주최하고 한국공예대전 운영위원회가 주관한 한국공예대전의 최종심사가 28일 익산예술의전당 미술관에서 열렸다.

심사결과 최우수상은 섬유공예 부문의 한아남(24·서울)씨의 '도시의 빛, 낮과 밤'이 선정됐다. 우수상은 금속공예 부문의 오석천(33·대전)씨의 '주전자'와 도자 부문의 이기연(30·서울)씨의 '공간의 기둥'이 공동 수상했다. 최우수상에는 1000만원, 우수상에는 500만원의 상금이 각기 수여된다.

대상으로 선정된 목파는 자작나무 합판을 재료로 탁자를 재해석한 작품이다.

김헌언 심사위원은 "나무라는 정적인 소재를 역동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형태감으로 잘 구사해 냈다"며 "특히 유기적인 흐름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점이 우수했다"고 평했다. 이어 "작품은 전산상의 개념적 조형형성과 수공예적인 조형이 결합된 것으로 기능성을 부분을 과감히 탈피해, 자유롭고 미래지향적인 비정형의 디자인을 구현한 점이 탁월했다"고 덧붙였다.

최우수상의 '도시의 빛, 낮과 밤'은 키네틱 아트(움직임을 본질로 하는 예술작품)와 LED 형광등 조명을 접목시켜 입체적인 조형예술을 표현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문별 최종심사는 김홍자(금속, 미국 몽고매리대학 명예교수), 이부웅(도자, 단국대학교 명예교수), 김헌언(목·칠/가구, 신라대학교 명예교수), 김지희(섬유, 대구 자연염색 박물관장) 씨가 맡았다. 심사위원들은 부분별 책임심사를 통해 각 부분 최우수 작품을 선정하였으며, 투표로 이들 작품 중 종합대상을 뽑았다. 한국공예대전 입상작은 오는 12월 5일까지 익산예술의 전당 미술관에 전시되며, 시상식은 12월 5일 오후 2시 전시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제17회 익산 한국공예대전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대상 이태희(가구) ▲최우수상 한아남(섬유) ▲우수상 오석천(금속) ▲우수상 이기연(도자) ▲특별상 김인숙(도자) 김민정(목칠) 박수한(목칠) 최태화(목칠) 최윤희(섬유) /정해은 기자

올해 독자들 마음 훔친 최고의 책은?

인터파크도서, 독자투표 통해 최고의 작가도 선정

인터넷서점 인터파크도서가 독자 투표를 통해 올 한 해 동안 읽는이들의 마음을 가장 많이 움직인 책과 작가를 선정한다.

인터파크도서는 '2016 최고의 책' 행사를 통해 다음달 14일까지 '최고의 책' 1권, '최고의 작가' 1명, '올해의 분야 베스트(BEST)' 8권을 선정한다.

올해 '최고의 책' 후보작에는 최근 1년간 인터파크도서 판매량 및 인터파크 주간랭킹 기준으로 도서 18권이 후보로 선정됐다.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혜민) ▲설민석의 조선왕조실록(설민석) ▲사피엔스(유발 하라리) ▲못 참는 아이 욱하는 부모(오은영) ▲풀꽃도 꽃이다(조정래) ▲법륜 스님의 행복(법륜) 등이 후보작에 포함됐다. 이들 18개 작품 가운데 행사 기간 중 진행되는 독자투표(50%)와 판매량(50%)을 합산해 최종 1권이 선정된다.

'최고의 작가'는 최근 1년간 인터파크도서 판매량 및 인터파크 주간랭킹 기준으로 ▲한강(채식주의자) ▲혜민 ▲설민석 ▲유발 하라리 ▲조정래 ▲법륜 ▲정유정(종의기원) ▲기욤 뮈소(지금 이 순간) 등 12명이 후보로 선정됐으며 이 가운데 1명을 시상한다.

'올해의 분야 베스트'의 경우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 출간된 도서 중 8개 부문별로 판매량 1위에 오른 도서를 선정했다.

▲풀꽃도 꽃이다(소설) ▲완벽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사랑(에세이·예술) ▲설민석의 조선왕조실록(인문교양) ▲5년 후 나에게:Q&A a day(자기계발) ▲52층 나무 집(어린이·청소년) ▲못 참는 아이 욱하는 부모(실용) ▲Vegetarian(외국도서) ▲사피엔스(e북) 등이다.

투표는 다음달 14일까지 인터파크도서 웹과 모바일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회원 ID당 매일 1회씩 '최고의 책'과 '최고의 작가'에 투표할 수 있으며 참여할 때마다 인터파크 I-포인트 100P를 증정한다.

이 밖에 역대 화제의 수상작 및 올해 출판계 핫이슈, 내년 기대작 등도 소개한다. 지난해 최고의 책 수상작은 '미움받을 용기'가 차지했으며 최고의 작가는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의 '채사장' 작가가 선정된 바 있다.

장덕래 인터파크도서 마케팅실장은 "'최고의 책'은 판매량과 랭킹으로 공정하게 후보를 선정하고 독자의 투표 점수를 합산해 시상하는 독자가 만드는 상"이라고 말했다.

투표 결과는 다음달 15일 발표되며 선정된 책과 작가에는 독자의 목소리와 함께 인터파크도서가 제작한 트로피를 전달할 예정이다. /뉴시스

정기공연 '무본' 전주 단독으로 선보여

국립민속국악원 무용단

국립민속국악원 무용단이 개원 이후 처음으로 전주에서 단독공연을 선보인다.

2016 국립민속국악원 무용단 하반기 정기공연 '무본'을 오는 30일 오후 7시30분 국립무형유산원 얼쑤마루 대극장에 올린다.

무대에는 국가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정재'부터 백성의 희로애락과 함께 해온 '민속춤'과 '악기춤'까지, 전통 춤이 총망라해 펼쳐진다.

1부 공연의 주제는 '정'이다. 자연과 인간의 교감과 이상세계를 조화롭게 담고 있는 〈학연화대합설무〉를 시작으로 〈춘앵전〉과 〈무고〉가 이어 펼쳐지며,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반주가 함께 한다. 무대는 궁중예술의 정수를 선사할 예정이다.

2부 공연의 주제는 '중'이다. 민속이라는 '원석'에서 무대 위의 '예술'로 다듬어진 〈승무〉, 〈살풀이〉, 〈태평무〉를 새로운 구성으로 만나본다.

특히 이번 공연에서는 한영숙류 승무 전바탕을 감상할 수 있으며, 절정의 경지에 이르러 힘을 발하는 북장단이 일품이다. 이어지는 〈태평무〉와 〈살풀이〉 모두 한영숙류 작품이며, 마지막에 이어지는 〈지전춤〉으로 공연의 대미를 장식한다.

3부 공연의 주제는 '동'이다. 우리 민족의 고유 타악기가 한데 어울려 춤으로 신명을 나눌 예정이다. 최종실류 〈소고춤〉의 화려한 춤판을 시작으로, 양도일류 〈장구춤〉으로 흥을 돋운다.

이어 커다란 고깔을 쓴 남무가 배관호류 〈금회북춤〉으로 신명을 고조시키면, 양손에 북채를 든 여무들의 신나는 〈진도북춤〉이 이어진다.

국립민속국악원 관계자는 "이번 공연은 한국춤의 근본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근간을 이루는 한국춤의 내용을 주제별로 선보이는 기획으로 구성했으며, 국가의 번영을 기원하는 정재, 민족의 희노애락과 함께 해온 민속무용, 한의 정서를 이겨내는 원동력인 신명의 악기춤까지 한자리에서 만나는 귀한 무대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정읍시립합창단 내달 1일 하반기 정기연주회

저녁 7시30분, 정읍사예술회관서

정읍시립합창단이 12월 1일 저녁 7시30분 정읍사예술회관에서 정기공연을 갖는다.

이번 공연에서는 합창곡 봄/여름/가을/겨울을 비롯 남성중창 '행복을 주는 사람'과 여성중창 '등불' 등 11곡을 들려줄 예정이다.

특히, 이번 공연에는 7080 발라드 인기가수 '양하영'과 KBS 아침마당과 SBS스타킹에 출연한 테너 '김승일'씨가 특별 초청돼 관객들의 흥을 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생기 시장은 "올해 초 성악 전공자와 성악에 소질이 있는 다수의 단원들이 위촉됨에 따라 시립합창단의 기량이 크게 높아진 만큼 어느 때 보다 성공적인 공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3월과 4월에 거쳐 성악 전공자와 성악에 소질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엄정한 심사를 거쳐 시립합창단 17명을 새로 위촉한 바 있고 지난 6월 상반기 공연을 성공리에 마쳤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립합창단 정기공연 포스터

웃기는 다섯 수녀들, 김제에 오다

뮤지컬 '넌센스', 내달 1일 김제문예회관서

깊어가는 겨울밤 유쾌하게 통큰 웃음을 주는 국가대표 뮤지컬 코미디 '넌센스'가 오는 12월 1일 오후 7시 웃음보따리를 가지고 김제문화예술회관으로 찾아온다.

이번 공연은 못말리는 다섯 수녀의 발칙 황당한 이야기로 엄하지만 변덕스러운 원장수녀 메리 레지나, 터프한 수녀원 2인자 교육담당 허버트, 큰 십자가에 머리를 맞아 기억을 잃은 엘네지아, 언더스터디지만 솔로무대의 꿈을 꾸고 있는 로버트 앤 마지막으로 귀여운 발레리나 예비수녀 메리 레오가 어떤 기막히고 엽기발랄한 이야기를 가져올 것인지 기대해 볼만 하다.

또한 국내 최고의 여배우 윤석화, 하희라, 신애라 등 국내 최고의 톱스타들이 올랐던 무대로 지옥같은 오디션을 통해 노래 실력과 연기력, 춤 등에 합격점을 받고 발탁된 젊은 여배우로 뛰어난 재능과 연기력, 열정을 가진 무대를 펼쳐질 것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띠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lab.com/

〈2016년 11월 29일〉

▷쥐띠
48년생: 일의 능률에는 좋으나 건강에는 좋지 못한 운이다.
60년생: 노력하는 것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운이다.
72년생: 이성과의 관계를 주의하라. 구설수가 따른다.
84년생: 손재수가 따르니 먼저 커피라도 베풀어라.

▷소띠
49년생: 다른 사람과의 화합에 신경써라.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다.
61년생: 매사가 어긋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73년생: 지금의 고생은 후에 결실로 다가올 것이니 쉬지말라.
85년생: 동기간과 함께하면 힘든일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호랑이띠
50년생: 남성은 여성의 조언을 구하라. 말속에 답이 있다.
62년생: 타인의 이목을 너무 의식하지 마라.
74년생: 손재수와 실물수가 따르는 운이다.
86년생: 이성과 함께 진행하면 사적인 감정이 생길 수 있다.

▷토끼띠
51년생: 놀라거나 정신적으로 편안하지 않으니 마음을 다스려라.
63년생: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운이니 기분좋게 진행하라.
75년생: 처리하는 일이 잘 되다가 중간에 막히게 되니 대비하라.
87년생: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타협하지말라.

▷용띠
52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방해자가 나타나니 주위를 살펴보라.
64년생: 동기간으로 인해 성사신 일이 발생한다.
76년생: 윗사람이 호의를 가지고 대하니 부탁을 들어준다.
88년생: 이성운이 좋아지는 운이다. 다투었던 사람과의 화해를 도모.

▷뱀띠
53년생: 베풀면 덕이 쌓이니 후에 반드시 돌려받게 될 것이다.
65년생: 경쟁자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운이다.
77년생: 인덕은 바라지 마라. 혼자 해결해나가야 한다.
89년생: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는 운이다.

▷말띠
54년생: 금전 지출이 심해지는 운이니 계획적인 지출이 필요하다.
66년생: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윗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라.
78년생: 경미하게 다치거나 아플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90년생: 정신이 뚜렷하지 않으니 매사에 집중력을 잃지 마라.

▷양띠
55년생: 다른 사람의 감언이설을 조심해야 하는 운.
67년생: 문서에 길성이 비추니 계약을 하거나 문서를 주고 받는다.
79년생: 건강에 대하 신경써라. 유행성 질병을 주의해야 하는 운이다.
91년생: 사소한 일에도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 마음을 다스려라.

▷원숭이띠
56년생: 다른 사람의 일어 나서지 말아라. 좋은 일하고 원망 듣는다.
68년생: 윗사람에게 능력을 인정 받을 수 있는 운이다.
80년생: 자신있던 일에 실수를 범할 수 있으니 검토는 필수다.
92년생: 손아래 사람으로 인해 신경이 곤두서는 운이다.

▷닭띠
57년생: 매사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할 때는 일찍 움직여라.
69년생: 작은 성과를 얻으려는 자에게는 좋은 운이나 큰 결과.
81년생: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든 운이다.
93년생: 시비수가 따르나 일시적인 것이다.

▷개띠
46년생: 손윗사람에게 신경써야 하는 운이다.
58년생: 금전운이 상승되는 운이다. 적극적으로 진행하라.
70년생: 타인과의 화합에 좋은 운이니 먼저 손을 내밀어봐라.
82년생: 처음에는 서로 뜻이 맞지않고 기분상할 일이 생긴다.

▷돼지띠
47년생: 타인에게 도움을 주면 좋은 결실이 있을 것이다.
59년생: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건강관리에 신경써라.
71년생: 다른 사람으로 인해 신경쓸 일이 발생하니 함께 일을 도모.
83년생: 식복이 따르는 운이나 구설수가 생기기도 한다.